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전 뉴욕연방은행총재, “내년 미국 침체 가능성 높아”
- WSJ: ‘건고한 일자리’와 ‘임금 상승’, 작년 하반기엔 주춤했다
- CNBC: 미 소매업계, 올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대비한다

#### [미국 금융]

- WSJ: 미 대형은행 전문가들, “올해 침체 예상... 연준 피벗 탕”
- Bloomberg: 작년 부진한 주식들, 신년도 첫 거래일에 반등

#### [뉴욕 식당]

- Bloomberg: 미국서 가장 기대되는 식당 14개 ... 한식당 Moono 포함

#### [글로벌 경제]

- CNN Business: IMF 총재, “올해 세계 경제의 1/3지역은 침체 예상돼”
- Bloomberg: 올해 글로벌 교역이 바뀌는 5가지 방식

#### [중국 경제와 팬데믹]

- NYT: 중국 경제, 왜 험난한 길에 부딪치는가?
- Bloomberg: 중국, “중국발 여행자 입국 제한 국가들 가만두지 않겠다”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시진핑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 최소 4.4%로 추산"
- 연합뉴스: "美기업들, 중국발 리스크 줄이려 멕시코로 생산 '니어쇼어링'"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고용주들, 직원 붙잡으려 임금 인상 제안...인플레 압박
- WSJ: 사무실행 요구하는 기업들 늘어난다...고용환경 변화 탓
- Bloomberg: 인플레 불구 올해 자동차 판매 성장한다...Chip 공급 회복
- WSJ: 새해 헬스케어 합병 거래, 급증 예상된다
- WSJ: 테크 업계, 팬데믹 기간 감원 속도 빨랐다
- Bloomberg: “한국, 글로벌 칩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Recession ‘Pretty Likely,’ Ex-New York Fed Chief Dudley Says**

#### **전 뉴욕연방은행총재, “내년 미국 침체 가능성 높아”**

- William Dudley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 해야할 일이 있기 때문에 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심각한 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이번 침체의 차이점은 경기 침체가 있을 경우 그것은 연준이 유도한 침체인데 연준이 금리 완화정책을 통해 침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연준은 지난해에 4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를 꺾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펼쳤는데, 일자리가 진정될 때 까지 금리 인상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연준측은 밝혔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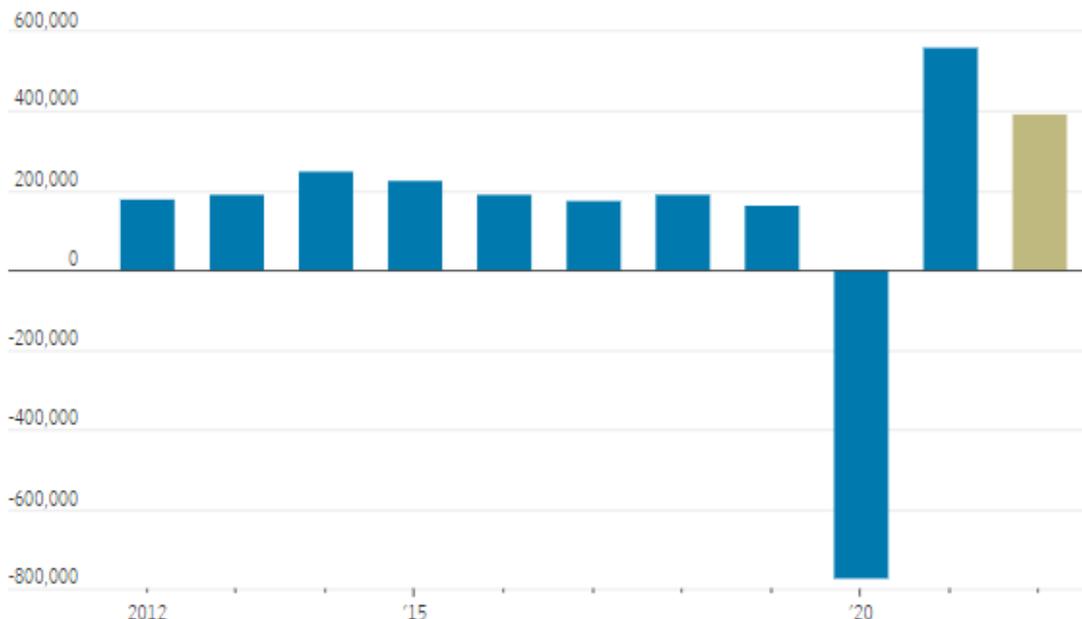
**WSJ: Robust Job and Wage Growth Showed Signs of Cooling in Late 2022**

**‘견고한 일자리’와 ‘임금 상승’, 작년 하반기엔 주춤했다**

- 전례없는 인플레를 막기 위해 지난해 연준이 금리를 크게 인상함으로써 경제는 둔화됐고 작년 하반기에 그 여파가 고용과 임금에도 영향을 주었다.
- 11월 실업률이 3.7% 였는데 연준에 따르면 신년도 4분기에 4.6% 상승할 것이라고 지난달에 예상했다.
- 또한 작년초부터 11월까지 매달 40만개 가까이 일자리가 늘었으나 작년 하반기에 큰 기업들은 해고나 해고 계획을 세웠었다. 실제 많은 해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2023년에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망하고 있다.
- 임금 부문 또한 저임금 분야에서도 임금 둔화 현상이 지난 수개월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Hiring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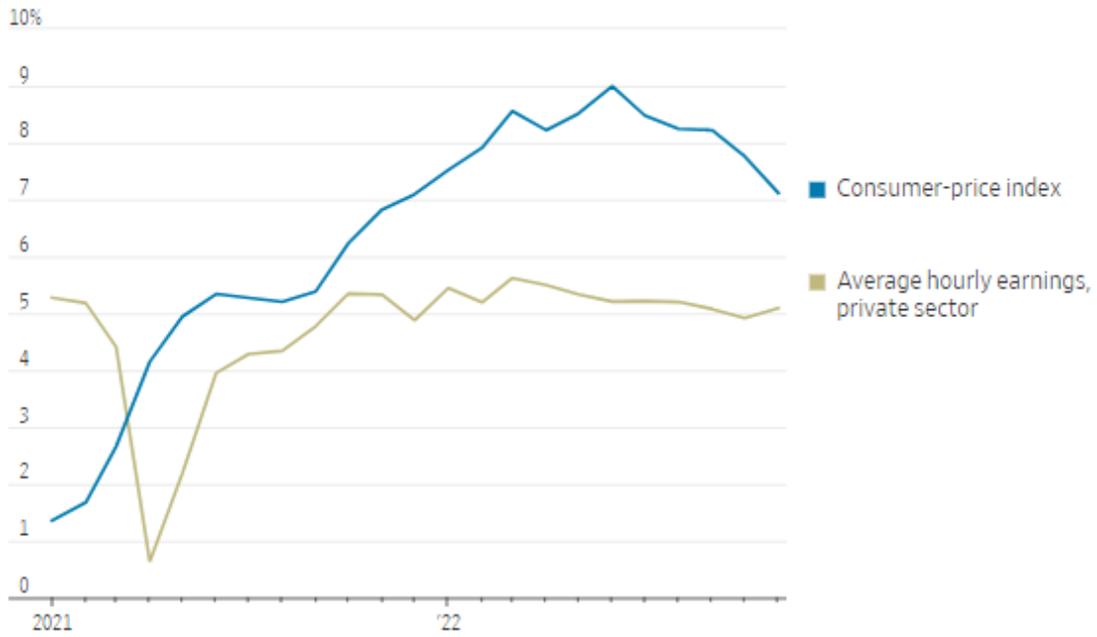
Average monthly change in nonfarm payrolls



Note: Seasonally adjusted. The 2022 average is through November.  
Source: Labor Department

### Inflation vs. W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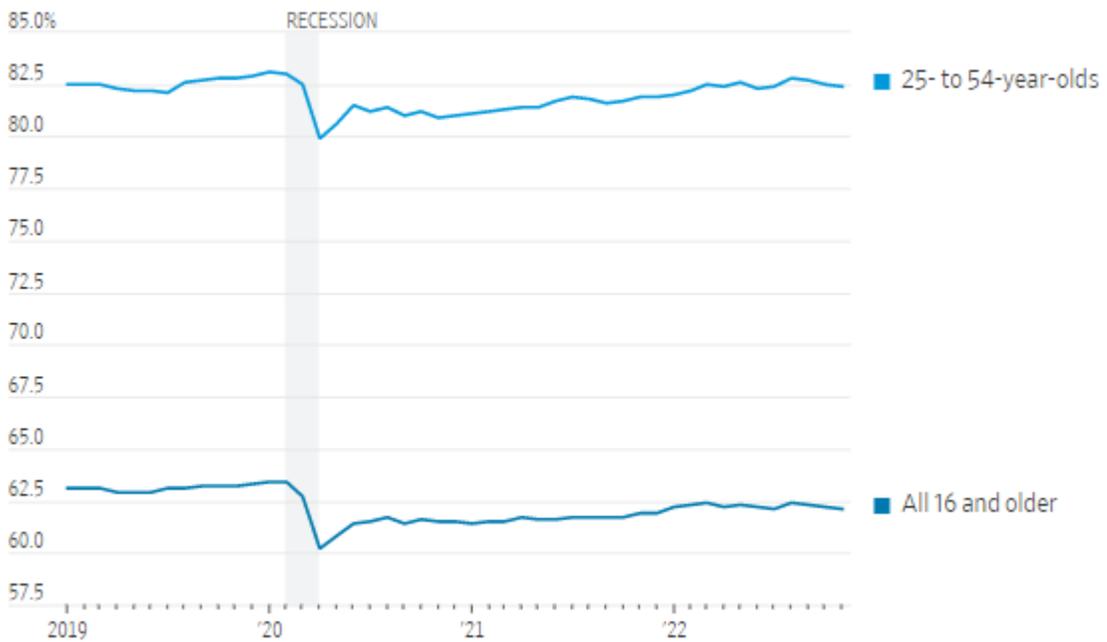
Consumer prices and wages, change from a year earlier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via St. Louis Fed

### Workforce Snapshot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via St. Louis Fed

WSJ 기사

## CNBC: Retailers brace for tougher times and more frugal customers in 2023

### 미 소매업계, 올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대비한다

-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1월이 2023년 소매업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우려보다 좋았는데, 온/오프라인 소매 매출을 측정하는 마스터카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매출은 인플레이 조정 전 7.6% 증가했다.
- 하지만 신용카드 잔액이 늘었고, 보석과 전자제품 등 고가품의 판매가 약화되며 소비 둔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 따르면 11월 미국인들의 소득에서 저축의 비중은 2.4%로, 팬데믹 이전의 평균 6.3%보다 감소했다. 개인 저축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소매업자들은 기프트카드 등을 이용해 1월 판매를 늘리려고 애쓰고 있다. 월마트 등 일부 업체들은 저렴한 식료품을 팔아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2023년 1분기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어 2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소매업체들이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새 상품의 주문과 제작을 줄이면서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

CNBC 기사

### [미국 금융]

## WSJ: Big Banks Predict Recession, Fed Pivot in 2023

### 미 대형은행 전문가들, “올해 침체 예상... 연준 피벗 탕”

- 대형 은행들은 미국의 경제 둔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연준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23개 미 금융회사들 3분의 2 이상은 2023년에 미국은 침체를 맞이한다는 데 베팅을 하고 있고 일부는 2024년에 침체를 맞게된다는 것.
- 이들이 적신호로 보는 것은 미국인들이 팬데믹 때의 저축이 줄어들고 있고, 주택 시장도 쇠퇴하고 대출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
- BNP Paribas SA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과 유로존의 침체가 주도하게 되어 올해 글로벌 GDP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WSJ 기사

## Bloomberg: US Stock Laggards of 2022 Set to Jump in First New Year Session

## 작년 부진한 주식들, 신년도 첫 거래일에 반등

- 신년초에는 지난해 80% 이상의 손실을 입은 일부 종목들과 폭락한 기술주, 소매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들, 암호화폐에 노출된 주식들이 오늘 화요일 개장전에 급등하며 유럽의 움직임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 작년 주가가 80% 이상 하락한 회사 중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Mullen Automotive는 오늘 화요일에 11% 상승했고, 가구 소매업체인 Bed Bath & Beyond는 15% 급등했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업체인 Coinbase Global는 2.7% 상승했다.
- 2022년에 81% 하락한 Snap 과 같은 기술주는 작년에 82% 급락한 후 Roku 와 마찬가지로 1.1% 상승했다. 그러나 긴 기간으로 보았을 때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 [뉴욕 식당]

#### Bloomberg: From Miami to Manhattan, the 14 Most Anticipated Restaurants in America

##### 미국서 가장 기대되는 식당 14개 ... 한식당 'Moono' 포함

- 현재 세계 50대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33위를 차지하고 있는 Atomix를 포함하여 뉴욕시 전역에서 수많은 한식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 Hand Hospitality는 Moono 를 운영하고 있다. 미술랭 스타를 받은 셰프 김호영의 Jua와 달리 Moono는 \$20에서 \$30 사이의 가격으로 전통적인 한국 요리를 소개하는 전 부침과 한국식 튀김을 선택하여 보다 캐주얼한 요리로 일품 메뉴를 제공한다.
- 이밖에 뉴욕에는 멕시코식 식당 Mischa와 일식당 Sushi Ichimura, 그리고 Iis가 있다.

Bloomberg 기사

### [글로벌 경제]

#### CNN Business: One third of world economy expected to be in recession in 2023, says IMF chief

##### IMF 총재, “올해 세계 경제의 1/3지역은 침체 예상돼”

-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올해 글로벌 경제가 지난 시기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총재는 지난 일요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는 미국, 유로존, 중국 모두 동시에 경기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결국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지만, 전쟁으로 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유럽의 상황은 더 암울하고 유럽연합의 절반이 침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7%로 작년의 3.2%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 Business 기사

## **Bloomberg: Fresh Fragility in Global Trade Set to Be Revealed in 2023 올해 글로벌 교역이 바뀌는 5가지 방식**

### **1. 바이든의 무역 전쟁**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기 되는데 특히 1) 미국에 일 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2) 중국에 강력한 수출통제와 무역 장벽을 강화하게 된다. 이로 인해 양국이 탈동조가 되지는 않지만, 양국 관계는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글로벌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다.

### **2. 대서양간 긴장**

바이든이 대중국 봉쇄정책에 유럽국가들은 움직이게 할지가 궁금하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바이든의 이런 전략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 감축법과 the Chips and Science Act 등의 보호주의 정책을 바라보면서 좌절을 느끼고 있다.

이런 갈등해소가 1조1천억달러의 양측간의 무역 안정과 미국의 장기적인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에 중요하다.

### **3. 글로벌 보조금 전쟁**

중국 정부의 청정 에너지 기술, 희토류, 반도체 등 21세기 핵심 산업 보조금 정책을 미국 정부는 좌시하지 않고 있다. 즉, 미국은 작년에 4천3백70억불 기후 지원 보조금, 5백27억불의 반도체 지원금 등 미 제조산업 부흥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중국은 물론 유럽과 다른 주요국들도 보조금 경주에 나서고 있다. 보조금 경쟁으로 돈 있는 국가들은 결국 이기게 되고, 부채 많은 저개발국가 들은 낙오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4. 다자주의의 역행**

WTO는 32조달러 규모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관장한다. 바이든은 WTO 기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과거 트럼프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무역 정책에서 보듯이 미국이 WTO가 미국 무역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WTO가 막강한 강대국 파워에 휘둘리게 되어 전조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 **5. 무역 블록화**

다자주의가 힘을 잃으면서 미국, 유로존, 중국이 주도하는 서로 다른 무역 블록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바이든의 Friend-sharing 이다. 블록 내부만 협력하게 되어 세계 총생산은 5%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와 팬데믹]****NYT: Why China's Economy Faces a Perilous Road to Recovery****중국 경제, 왜 험난한 길에 부딪치는가?**

- 요약: 3년동안 팬데믹 봉쇄령으로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제는 '혼란스러운 리오프닝' 조치로 인한 코비드 확산 때문에 근로자들과 고객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 중국 통계국은 최근 테이터를 통해 "최근 전염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기업의 생산성과 수요, 종업원들의 출근율, 물류 외 제품 유통에 큰 여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 많은 지역에 감염을 막으려고 시도한 봉쇄령이 발생한 지난해 11월에 제조업은 둔화되고, 팔리지 않은 자동차가 늘어나고 소매점들은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 물론 갑작스런 봉쇄령 해제 조치로 일부지역에서는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베이징 등 북부 도시들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발명이 정점에 이르러 최근 며칠동안 사람들이 다시 외출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수출업체에 대한 압박은 최근 몇 달 동안 더욱 심해졌다. 중국의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대미 수출이 25% 급감했다.
- 중국정부는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내수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돈을 소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 소비 지출에 신중한 상황이다.

## NYT 기사

**Bloomberg: China Vows to Hit Back at Nations Imposing Covid Travel Curbs****중국, "중국발 여행자 입국 제한 국가들 가만두지 않겠다"**

- 중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행자들에게 코로나19 제한을 가한 국가들에 대해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일부 국가들이 중국인에게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약하고, 일부 지나친 대응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코로나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또한 국제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코로나를 막기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 현재 미국과 일본, 다른 국가들은 중국 입국자들은 입국하기 전에 음성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시진핑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 최소 4.4%로 추산"
- 연합: "美기업들, 중국발 리스크 줄이려 멕시코로 생산 '니어쇼어링'"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Stay for Pay? Companies Offer Big Raises to Retain Workers 고용주들, 직원 붙잡으려 임금 인상 제안...인플레이 압박

-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11월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년 대비 평균 5.5% 올라 2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레저와 환대업종 분야의 근로자들은 더 급여가 높은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직이 유리해졌다. 직원이 떠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고용주는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더 올리고 있다. 신입사원 채용과 교육에 따르는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노동시장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임금 상승폭도 점차 느려지고 있다. 11월 평균 시간당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해, 3월의 5.6%보다 둔화됐다. 많은 분석가들은 앞으로 몇달 간 임금 인상 속도가 더 느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WSJ 기사

#### WSJ: More Bosses Order Workers Back to the Office as Job Market Shifts

##### 사무실행 요구하는 기업들 늘어난다...고용환경 변화 탓

- 경기 불황의 불안감 속에 고용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더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실로 돌아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직원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원격 근무를 두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일부 경우는 기업의 사무실 복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몇 주 안에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 직원들은 사무실 근무가 출퇴근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은 출퇴근이 신입사원 교육과 기업 문화 강화 등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WSJ 기사

## **Bloomberg: Inflation Won't Stop 2023 Auto Sales Growth Amid Chip Recovery**

### **인플레이가 올해 자동차 판매 성장 막지 못한다...반도체 칩 공급 회복**

- 미국의 신차 판매가 12월 전년 대비 4% 증가한 1백 27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에는 차량 생산이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영향을 상쇄하고도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 지난 2년간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 차량 생산이 늦어지고 재고가 줄어들면서 차량 수요가 억제되었다. 현재 칩 부족 사태가 해결되면서 자동차 생산 공장들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고, 그동안 억눌린 소비자들은 올해 더 많은 차량을 구매할 것이다.
- 이에 미국 자동차 판매가 2023년 1백만 대 이상 늘어 약 1천5백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가 올해 다가올 경제적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 **WSJ: Healthcare Deal-Making Set to Surge in 2023**

### **새해 헬스케어 합병 거래, 급증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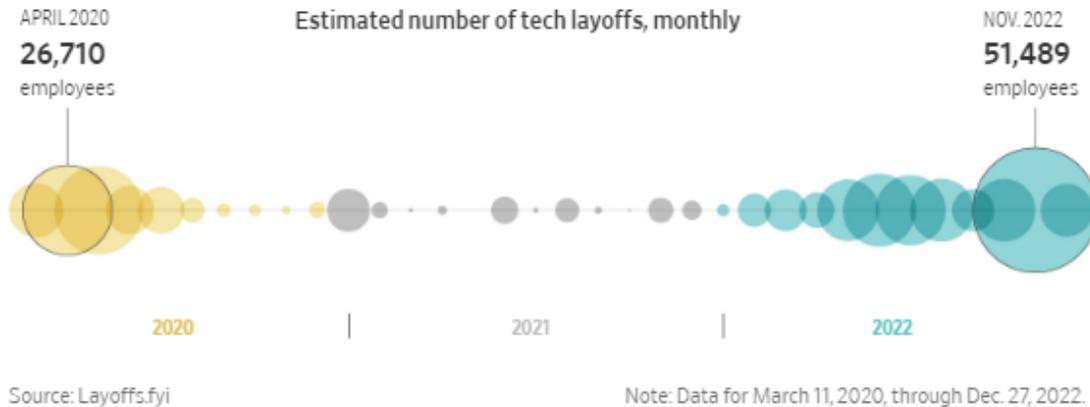
- 작년에는 의료 부문의 거래 규모가 그 전년도 대비해 2천20억달러로 56% 감소했다.
- J&J는 작년 11월 1일 심장 펌프 제조업체 Abiomed를 현금 1백6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가장 큰 의료 거래 중 하나를 발표했다.
- 작년 12월 초에 발표된 가장 큰 의료 거래는 Amgen이 Horizon Therapeutics를 28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 그런데 PricewaterhouseCoopers는 내년에 제약 및 생명 과학 분야의 M&A 거래 규모가 2천2백50억 달러에서 2천7백50억 달러 범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WSJ 기사

## **WSJ: Tech Layoffs Are Happening Faster Than at Any Time During the Pandemic**

## 테크 업계, 팬데믹 기간 감원 속도 빨랐다

- Layoffs.fyi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테크 업계가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와 미국 및 해외의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이 추정치는 팬데믹 이후 테크 기업들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특히 소매업과 소비자 부분에서 2022년 4만 명이 감원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의료 부분과 교육 기술 부분도 팬데믹 초기에 성장했다가 다수 감원을 발표했고, 여행 부문은 팬데믹 초기 크게 타격을 입었으나 2022년에는 감소가 적었다.
- 팬데믹 기간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들이 기술에 의존하면서 테크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왔지만, 점차 수요가 줄어들고 디지털 광고의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감원 추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WSJ 기사

## Bloomberg: Samsung Veteran Sounds Alarm on Korea Losing Global Chip War

“한국, 글로벌 칩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

-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기술의 확보가 국가 안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견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 역시 기술 패권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 이에 한국 국회는 지난달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는 대기업들에게 8%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재경부는 세금 감면을 최대 25%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삼성은 대만의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꼽히고 있다. 외교, 국방 등 안보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도 자국의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월가 대형은행 3분의 2, 올해 美 침체 전망...  
하반기 금리인하 예상****올해 미국 경제 위축 예상...가법거나 온화한 침체 전망  
"연준, 하반기 금리 인하 나설 듯"...주식·채권 시장 회복**

미국 월가 대형은행들의 대부분은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클레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TD증권, UBS 등 23개 대형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분의 2 이상인 16개사가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2개사는 올해가 아닌 내년에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NP파리바는 2023년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는 미국과 유로존 모두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